# 河英善

## 국제정치칼럼
## 1991-2011 上

EAI
동아시아연구원

# 하영선

## 국제정치 칼럼
## 1991-2011

## 上

이 책은 환경보호를 위해 재생종이를 사용하였으며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인증하는 녹색출판 마크를 사용하였습니다.

# 河英善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 上

저 자 | 하영선
발행자 | 하영선
발행처 | (재)동아시아연구원
발행일 | 2012년 6월 1일 1쇄

편 집 | 신영환
디자인 | 유정화

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 158, 909호(을지로 4가, 삼풍빌딩)
전화 | 02-2277-1683(代)
팩스 | 02-2277-1684
홈페이지 | www.eai.or.kr
등록 | 제2-3612호(2002. 10. 7)

ISBN 978-89-92395-23-6 94340
978-89-92395-22-9 (세트)

값 22,000원

# 河英善

## 국제정치칼럼

## 1991-2011 上

EAI

## 인사말

국제정치 칼럼을 본격적으로 쓴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냉전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갑자기 막을 내렸다. 나는 당시 숨 가쁘게 전개되는 역사의 무대를 바라다보면서 단순히 탈냉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탈근대의 서곡을 알리는 복합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예감했다. 1991년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고정 칼럼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등장을 새롭게 풀이하려는 실험을 시작했다. 1992년 초 새 시대를 새 부대에 담아달라는 조선일보의 요청으로 3년 동안 국제정치 사설 100편을 썼다. 매주말 논설위원 회의에 참석 후 선택된 주제의 국제정치 사설을 두 시간 내에 써야하는 과제는 모범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강단에서 체험할 수 없는 국제정치 현장의 긴장감을 느끼고 논문쓰기와는 다른 언어적 실천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95년부터 10년 간은 주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시론들을 쓰다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일보에 2년 반, 조선일보에 4년 동안 "하영선 칼럼"이라는 이름으로 기명칼럼을 연재했다.

지난 20년 동안 300편의 칼럼과 100편의 사설을 쓰면서 늘 가슴과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19세기 한국 개화정책과 사상의 대부 역할을 했던 박규수가 남긴 "冷眼看時務 虛心讀古書"(차가운 눈으로 시무를 보고 비운 마음으로 고서를 읽는다)라는 글귀다. 국제정치를 제대로 알고 행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귀한 충고다. 시무와 고서는 상호보완적이다. 고서를 통해서 안목을 키우지 않고서는 시무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시무를 모르면서 고서

를 제대로 이해하기도 불가능하다. 나아가서 시무를 바로 보려면 충혈되지 않은 냉안이 필요하며 고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욕심 없는 허심이 필수적이다. 20년 국제정치 칼럼쓰기는 과거와 다른 복합국제정치학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동시에 새로 마련한 시각은 지난 20년의 국제정치와 남북문제를 새롭게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20년의 국제정치 칼럼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다. 격동의 현실을 제대로 읽고 알리려는 역사적 기록이다. 미소 중심의 냉전질서는 예상보다 빨리 미중 중심의 복합질서로 바뀌고 있으나 한반도의 남북한은 지도자들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냉전질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시대착오적 진보와 보수는 복합시대의 빠른 변모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철늦은 논쟁을 지루하게 계속하고 있다. 국제정치 칼럼을 20년 동안 계속해서 쓰게 만든 원동력은 남남, 남북, 미중의 3중 공진(共進)의 아름다운 길을 찾아서 우선 국내의 남남 갈등부터라도 풀어보려는 꿈 때문이었다. 동시에 19세기 한반도 현실을 일기체로 남긴 황현의 《매천야록》이 그 나름의 시각에서 당대의 현실을 소상하게 전해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듯이 미래의 독자들을 위해 탈냉전과 복합의 20년사에 대한 작은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

국내의 상업출판사들이 손익계산이 맞지 않아 출판의 엄두를 내지 못하는 속에 이숙종 원장을 비롯한 동아시아연구원 식구들은 아무런 계산 없이 출판을 자청했다. 대가없는 힘듦을 받아 준 여러분들에게 고마울 뿐이다. 그 동안 쓰고 대담했던 내용들을 모아 싣는 것을 반갑게 허락해 준 언론기

관들에게 감사한다. 특히 사설 100편의 게재와 사진사용을 도와 준 조선일보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 20년에 걸친 신문자료들의 정리는 송지예 석사를 비롯한 제자들의 정성어린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놀랄만한 신속성과 효율성으로 두 권의 책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동아시아연구원 신영환 출판팀장의 초인적인 노력이 함께 했다. 모두에게 진 빚들을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지난 20년 동안 어렵다고 늘 불평하면서도 각별한 애정으로 칼럼을 정성스럽게 읽어 준 독자 여러분들에게 모자를 벗고 정중한 인사를 하고 싶다. 동시에 21세기를 걸머지고 갈 우리 젊은이들을 미래의 독자로 초대하고 싶다.

2012년 5월

만청 하영선晩靑 河英善

# 목차


1991년 ····· 009

1992년 ····· 041

1993년 ····· 095

1994년 ····· 149

1995년 ····· 213

1996년 ····· 239

1997년 ····· 251

1998년 ····· 275

1999년 ····· 293

2000년 ····· 329

| 부록 | 1980-1990년 ····· 389

# 1991

▲ 소련 붕괴

## 1991년 10대뉴스

1. 소련 붕괴
2. 걸프전 발발
3. EC 등 세계경제 블록화
4. 이스라엘-아랍 회담
5. 캄보디아 평화협정 체결
6. 일본 군사대국화
7.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8. 북한 핵개발 사찰 추진
9. 남북 '화해불가침' 합의
10. 지방자치제 30년만의 부활

중앙일보 1991년 1월 16일

**시평**

# 이슬람 세계관에 비춰 본 "페만"

1980년대 중반 이래 진행되어 온 탈냉전의 역사적 전개 속에서 해빙의 봄을 맞이하고 있던 세계는 뜻밖의 복병으로 나타난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해 심한 봄추위를 겪고 있다. 페르시아만 사태는 단순히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이러한 페르시아만 사태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페르시아만 사태의 장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검토를 필요로 한다.

## 한반도 안전에도 직결

페르시아만 사태의 장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세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미국의 페르시아만 사태에 대한 대응책의 전망이다. 미국이 페르시아만 사태의 해결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9일의 미국-이라크 회담에서 후세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려다 거부당한 서한에서 다국적군과 이라크의 전쟁은 이라크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철수에 의해서만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미국의 통보는 단순히 이라크의 최종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외교적 위협이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력의 사용 결의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페르시아만 사태에서 무력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력의 우위와 무력 사용의 명분을 이미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은 이라크군에 비해 양과 질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는 한 일기 및 지리의 특수성과 사막전의 경험 부족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군사력 우위와 함께 월남전의 경우와 달리 미국은 군사력 사용의 정당성에 대해 지난 14일 상하 양원의 페르시아만 무력 사용 승인과 관련 11월의 유엔안보리 결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시리아 등의 다국적군 참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폭넓은 지지기반을 획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라크의 실질적인 양보없이는 속전속결의 군사력 사용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범아랍주의에는 한계**

둘째, 아랍국가들의 페르시아만 사태에 대한 대응책의 전망이다. 이슬람세계는 명분상으로 유럽의 근대 국제체제와는 다른 독특한 세계질서관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슬람 세계질서의 기본구조는 이슬람교도 집단인 "이슬람의 가"(Dar al Isalm)와 이교도 집단인 "전쟁의 가"(Dar al Harb)라는 종교공동체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의 역사 속에서 이슬람교도들은 복수의 정치집합체를 형성하고 전개시켜 왔으며 근대 유럽 국제체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오늘과 같은 다수의 아랍 국가들을 형성했다. 따라서 오늘의 이슬람세계는 명분과 현실이 혼재한 속에서, 아랍-이스라엘 전쟁에서는 명분적인 이슬람 세계질서가 보다 주도적으로 작동하는 반면에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해서는 아랍 국가들의 개별 이익이 보다 강하게 작동해 범아랍주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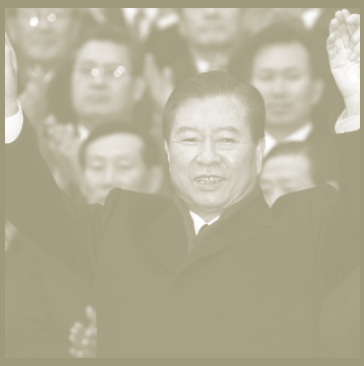
이러한 속에서 이라크는 필요한 경우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라도 페르시아만 사태를 이슬람교도의 의무인 성전으로 만들려는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랍 국가들이 하나의 종교공동체로서의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철군하지 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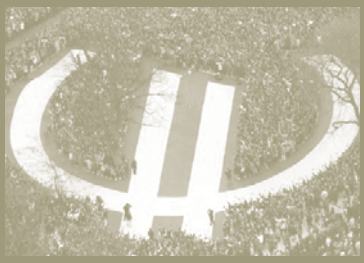
속에서는 친이라크 경향의 리비아, 팔레스타인해방기구, 예멘과 이스라엘 주변국가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이 현실적으로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성전에의 동참 못 얻어**

셋째, 이라크의 페르시아만 사태에 대한 대응책의 전망이다. 미국의 군사력 사용 결의, 아랍 국가들의 종교적 통일체로서의 한계 속에서 이라크가 택할 성전(Djihad)과 평화(Sulh)의 선택이 최종적으로 페르시아만 사태의 장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이슬람 세계질서관에서 성전은 "전쟁의 가"를 "이슬람의 가"로 만들기 위한 이슬람교도의 군사적, 그리고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부단한 노력을 말하며, 평화는 이슬람교도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 이슬람교도 공동체와 이교도 공동체 간의 계약에 의해 성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이라크는 현실적으로 다국적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으며 명분상 다른 아랍 국가들의 적극적인 성전에의 동참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이라크의 노력은 최종적으로 이슬람적 명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철군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으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슬람이라는 말의 뜻과 같이 알라신의 가르침에 귀의하게 될 것이다. ■





재생종이로 만든 책

값 22,000원

9 788992 395236 94340
ISBN 978-89-92395-23-6
ISBN 978-89-92395-22-9 (세트)